

## 역사도시 내 주요 건축물과 도시맥락의 대응관계 사례 연구

- 16세기 로마 도시개조사업 이후의 성모마리아 대성당을 중심으로 -

전진영\*

### A Case Study of the Mutual Adaptation between Architectural Elements and Urban Context

- Focused on the Basilica Santa Maria Maggiore and the Urban Reform Project Accomplished in the 16th Century in Rome -

Jin-Young Chun\*

**요약 :** 역사도시에서 도시공간구조의 변화가 발생할 때에는 주변의 건축요소들에게도 그 영향이 반영된다. 일반적으로는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직접 면하는 주변부의 도시적 대응이 이루어진 후에 점차 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인근 건축물의 형태 및 기능에 대한 조율이 따르게 마련이지만 건축물의 규모나 중요성에 따라서는 오히려 건축적인 요소들이 도시맥락 형성의 변수로 작용하기도 한다. 흔히 도시계획사에서 도시개조사업의 사례들을 취급할 때에는 주변의 도시맥락(Urban Context)에 도입되는 도시차원(Urban Scale)의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건축적 요소들은 소홀히 취급되지만 심층적인 관찰과 분석을 병행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도시와 건축 사이에는 유기적이면서 쌍방향적인 소통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스케일(Scale)의 위계에 따라, 처음에는 도시차원의 변화 위주로 특정 지역의 도시이미지가 결정되지만 점진적으로는 건축차원(Architectural Scale)에서도 도시와 건축의 구체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게 된다. 16세기 말 식스투스5세(Sixtus V) 교황이 주도한 로마의 도시개조사업은 이러한 사실의 좋은 예이다. 즉, 성모마리아 대성당(Basilica Santa Maria Maggiore)과 스트라다 펠리체(Strada Felice)에 의해 형성된 도시공간구조는 점차적으로 대성당의 두개의 쿠폴라(Cupola)와 주변 골목길들의 대응관계로 구체화된다. 더욱이 16세기 및 17세기에 이루어진 도시맥락의 조형방식이 19세기에 반복적으로 적용된 것은 도시와 건축의 관계설정에 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식이 특정지역의 도시이미지를 결정하는 요소로 오랫동안 남게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제어 :** 도시개조사업, 식스투스5세 교황, 성모마리아 대성당, 시선 축, 도시맥락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relationship between urban transformation and its consequent adaptation of the architectural elements in the area, in the case of Basilica Santa Maria Maggiore in Rome. The Basilica Santa Maria Maggiore is the conceptual center of the urban intervention accomplished by the Pope Sixtus V. In most of the cases, the descriptions of historical urban projects lack visions in architectural scale. But when the urban contexts change, so do the architectural contents, in order to meet the new needs of urban conditions. So

\*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건축학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Architecture, Myongji University)

far, the Urban Reform Project of Sixtus V in Rome has been regarded as one of the most outstanding references among urban scaled projects. In terms of urban project point of view, the observation of the transformation process of the Basilica, after the intervention done by the Pope at the end of 16th century, shows how the architectural elements are articulated closely with the evolution of urban contex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urban tissue around the Basilica was modified in concordance with the Strada Felice (urban spine of Sixtus V's intervention). 2. Inside the Basilica, two new chapels were built on the extension lines of three new street axis around the Basilica. 3. A column was erected on the opposite side of the obelisk but on the symmetric axis of the whole building of the Basilica, which differs from the obelisk laid on the axis of Strada Felice. 4. In the 19th century, a new street of 'Via Torino' was formed in relationship with a cupola of the Basilica.

**Key Words** : Urban Reform Project, Pope Sixtus V, Basilica S. Maria Maggiore, Visual Axis, Urban Context

## I. 머리말

### 1. 연구의 목적

역사도시 안에서 도시구조의 변화가 발생할 때마다, 시기와 내용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주변의 건축요소들은 그에 따른 적응과 변화의 과정을 필연적으로 겪게 된다. 특히 도시구조의 변화가 심각한 경우에는 먼저, 그에 부수하는 주변부의 도시적 대응이 이루어진 후에 점차적으로 그러한 도시적 대응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인근 건축물의 형태 및 기능에 대한 조율이 따르기 마련이다.

흔히 도시계획사(都市計劃史)에서 도시개조사업의 사례들을 취급할 때 주변맥락에 도입되는 도시적 차원(Urban Scale)의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건축요소의 대응적 변화는 배제되거나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는 것이 통례라 할 수 있지만, 도시와 건축의 유기적인

연관성이 결여된 사실(史實)의 기술은 완전하지 못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탈리아 로마에 소재한 성모마리아 대성당(Basilica Santa Maria Maggiore)의 사례를 통해서 16세기말의 중요한 도시사적(都市史的) 사건인 식스투스5세 교황(Sixtus V; 재위 1585년~1590년)의 로마개조사업과 그에 따른 주변 건축요소들의 적응 및 변천과정을 고찰하여 도시구조의 변경에 따른 도시맥락과 건축요소의 대응관계의 한 예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도시차원의 사업이 추진될 때 해당 지역의 주요 건축물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를 예시하고자 한다.

도시공간의 구조변화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무시되기 쉬운, 건축적 관점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도시건축을 이해하는 기준이 거시적으로는 도시스케일에서의 해석이지만 건축스케일에서의 미시적 관점이 동시에 작용할 때만 올바른 사실(史實)의 정리가 됨은 물론,

역사도시 내의 장소성을 존중하면서 도시공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설계자료로서 유효하기 때문이다.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되는 공간의 범위는 성모마리아 대성당의 건물 자체 및 그와 인접한 도시맥락(Urban Context)이며 시간적으로는 식스투스5세 교황의 재위기간을 전후한 시기부터 성모마리아 대성당의 건축내용과 주변의 도시맥락이 현재의 모습으로 확정된 20세기 말까지로 한다.

본 연구는, 객관적인 고증을 거쳐 로마의 도시사(都市史) 또는 건축사(建築史) 연구에 많이 인용되는 문헌자료<sup>1)</sup>, 도면 및 도상자료, 회화작품, 사진자료 등을 서로 비교, 대조함으로써 성모마리아 대성당 건물의 변천과정과 식스투스5세 교황의 도시개조사업에 따른 도시맥락의 변화를 재구성한 다음에, 도시적 상황과 건축요소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다만, 도시맥락과 건축물의 대응적 변화가 정확하게 같은 시점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양자를 별개로 재현한 후에 상호 연관성을 확인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식스투스5세 교황의 로마개조사업구상에 전제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위의 방식으로 밝힌 성모마리아 대성당 건물과 주변 맥락의 상호 적응과 소통이 결코 우연이 아니며 치밀하게 구상된 도시개조 전략에 따른 결과임을 밝힐 것이다.

성모마리아 대성당 건물의 변천을 다룸에 있어서는 장식이나 상세부의 내용보다는, 도시맥락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건물의 매스(Mass)나 내부 공간체계, 전체 외관의 변화 등에 중점을 두어 시기별 상황을 재현할 것이다.

## II. 식스투스5세 교황의 도시개조 구상

### 1. 도시개조 구상의 중심점

식스투스5세 교황은 성모마리아 대성당을 자신이 구상한 로마의 새로운 중심으로 삼아 일련의 도로체계를 통합하면서 도시의 기념적 조형물들을 연결하는 구심점의 역할을 부여하려고 계획하였다.<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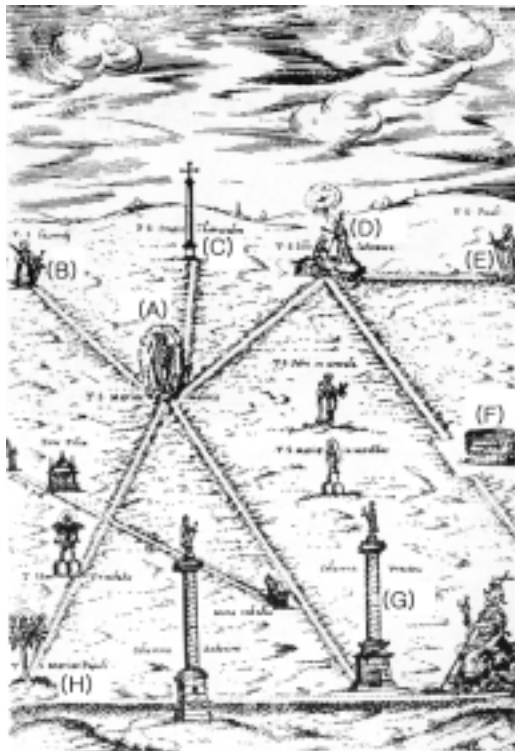
식스투스5세 교황의 로마 개조사업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공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사(都市計劃史)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든 방대한 규모였지만, 그 기본은 길이 약 4킬로미터에 달하는 직선도로 ‘스트라다 펠리체(Strada Felice)’의 건설이라 할 수 있다.

식스투스5세 교황이 권좌에 오르기 전인 추기경 시절에 성모마리아 대성당 근처에 ‘빌라

1) I. Insolera, 1988, *Roma, Laterza*를 주로 참고하였음.

2) S. Giedion, 1967, *Space, Time and Architecture*, 5th edition, pp. 75~106

몬탈토(Villa Montalto)'라 불리는 사저(私邸)를 건축하고 독서와 경작(耕作)으로 소일하며 구상하였을 도시개조사업은 새로운 간선도로 '스트라다 펠리체'를 전제로 가능한 것이고 그 도로의 중심점에 성모마리아 대성당이 입지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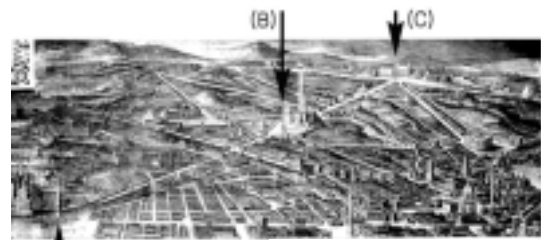


(A) 성모마리아 대성당 (B) 성 로렌조 성당 (C) 성 십자가 성당  
(D) 요한 대성당 (E) 바울 대성당 (F) 콜로세움  
(G) 트라야누스황제 기념 원주 (H) 국민의 광장(마리아성당)

〈그림 1〉 식스투스5세 교황의 로마개조 구상<sup>3)</sup>

또한 종교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1517년 시작된 종교개혁운동이 독일과 스위스를 중심으로 확산 일로에 있는 상황에 처하여 기존 교계

의 수장인 교황의 수구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대두되었을 것이며 특히 개신교와 차별된 성모신앙의 강조로 종교개혁파에 대한 반격이 구체화 되었을 것이다. 이 시기의 로마 7대성당<sup>4)</sup>에 대한 성지순례의 장려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A) 국민의 광장(마리아 성당)  
(B) 성모마리아 대성당  
(C) 성 십자가 성당

〈그림 2〉 스트라다 펠리체(Strada Felice)<sup>5)</sup>



(A) 베드로 대성당 (B) 성모마리아 대성당 (C) 요한 대성당  
(D) 바울 대성당 (E) 성 계단 성당 (F) 성 십자가 성당  
(G) 성 로렌조 성당

〈그림 3〉 로마의 7대 성당<sup>6)</sup>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도로체계의 중추인 스트라다 펠리체와 도시의 명소이며 역사적,

3) 역사화(G. F. Bordino, 1588년)에서 발췌함.

4) 4대 성당 외에 성 로렌조 성당, 성 십자가 성당, 성 계단 성당 등이 포함됨.

5) 바티칸박물관 내 도서관 프레스코 벽화(1589년)

6) 역사화(A. Lafrery, 1575년)에서 부분 발췌함.

종교적 가치를 가지는 성모마리아 대성당을 구체적으로 연관시킴으로써 물리적인 도시맥락을 통해 건축물이 지니는 정신적인 의미를 고양하고 확산시키려는 계획이 식스투스5세 교황의 로마 개조사업에 전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 2. 16세기 말 로마 도시개조사업의 의미

16세기말 식스투스5세 교황에 의해 주도된 로마의 도시개조사업은 시선 축(Visual Axis)을 이용하여 직선도로와 수직 조형요소를 통합하고 이를 통해서 도시 이미지를 구체화하는, 전형적인 바로크적 도시계획의 효시가 된다.

로마에 국한하여 생각할 때, 고대 로마시대의 도시공간구조는 포로 로마노(Foro Romano)를 에워싼 중심적 구조인데 반하여 식스투스 5세 교황 이후의 도시공간은 스트라다 펠리체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원심적 구조로 반전된다.<sup>7)</sup>

한편, 직선도로와 수직 조형요소를 조합하여 도시 내 주요 결절점(Node)을 구성하는 방법은 17세기 이후 절대왕정시대를 맞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며 초기 미국 도시들의 계획에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대도시의 공간구성 방식으로도 유효한 수법이다.

## III. 건축요소와 도시맥락의 대응관계

### 1. 성모마리아 대성당의 유래

성모마리아 대성당은 고대 로마제국시대인 4세기 중반에 리베리우스 교황의 명으로 로마의 7언덕 중 하나인 에스퀼리누스언덕에 건축되었다.

서기 4세기 초, 기독교 공인 당시에는 주로 사도나 성자의 무덤이 있는 성 밖에 기념 교회당을 건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던 만큼, 구도심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성모마리아 대성당의 터는 고대 로마시대부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실제로 최근의 고고학 조사결과 성모마리아 대성당의 지표면 아래에서 고대 로마의 유적이 빼곡하게 발견되는 등, 대성당의 건축 이전에도 상당한 규모의 시설물이 존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로마의 4대 대주교좌 성당<sup>8)</sup>에 포함되는 이 성당은 성모 마리아에게 봉헌된 최초의 성당이며 마리아를 기념하는 로마의 성당 중 가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성모마리아 대성당'으로 명명되었고 건축당시의 전설과 관련하여 '눈(雪)의 성모 성당'으로 불리기도 한다.

성모마리아 대성당의 최초 건축 당시 규모나 공간구조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바가 거의 없으며, 대성당 건물의 사료는 서기 5세기의 중건 이후의 내용부터 전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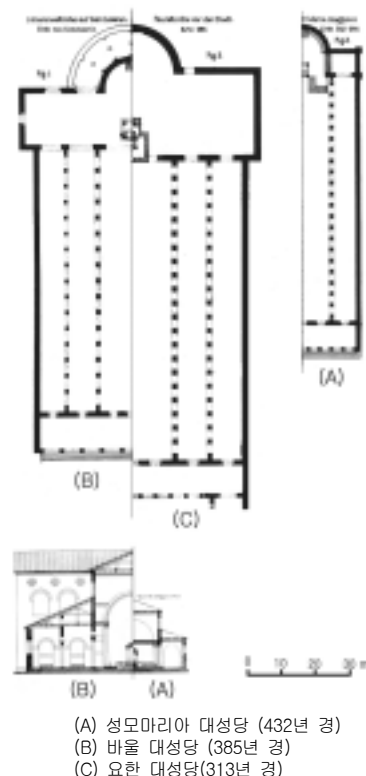
7) Edmund N. Bacon, 1992, *Design of Cities*, Thames and Hudson, pp. 86~87

8) 에스퀼리누스의 성모마리아 대성당 외에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 라테란의 성 요한 대성당, 성 밖의 성 바오로 대성당 등이 여기에 포함됨.

서기 5세기의 에페소 공의회<sup>9)</sup>를 기념하기 위해 식스투스3세 교황의 치세 중에 대성당 건물에 대한 전면 개축이 이루어졌는데 리베리우스 교황시절에 지은 최초의 건물을 증진하였는지 원래의 건물을 철거하고 근처로 터를 옮겨 새롭게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해지는 사료가 없다.

서기 5세기에 증진된 성모마리아 대성당을 여타 초기 바실리카(Basilica)<sup>10)</sup>형 성당들과 비교하면〈그림 1〉 그 규모가 결코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네이브(Nave)<sup>11)</sup>의 장축방향이 22칸으로서 앱스(Apse)<sup>12)</sup>부분을 포함한 건물 내부의 길이는 86미터에 달하고, 네이브와 양쪽 아일(Aisle)<sup>13)</sup>을 합한 길이가 32미터로서 트란셉트(Transept)<sup>14)</sup>가 없는 공간형식을 취하고 있다. 증진 당시의 공간구조는 이후로도 유지되어 오늘날까지 성모마리아 대성당 건축의 모체가 되고 있다.

서로마제국이 멸망한 서기 5세기 말부터 16세기 이전의 성모마리아 대성당은 도시 내 중요 시설물로서 별 의미를 갖지 못했다고 추정되며 이는 로마제국의 멸망이후 도시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교황이 아비뇽으로부터 귀환한 이후에는 교황청을 바티칸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도시의 중심이 바티칸과 인접한 테베레(Tevere) 강의 동안(東岸)으로 옮겨갔음에 기인한다.



〈그림 4〉 초기 로마의 주요 성당 비교<sup>15)</sup>

실제로 16세기 이전에 발간된 로마의 성지 순례용 안내서 등에서 성모마리아 대성당의 취급이 다른 명소나 주요 건축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사실은 위의 내용을 입증한다.

## 2. 성모마리아 대성당 건물의 변천과정

가용한 문헌자료, 도면 및 도상자료를 통해,

9) 서기 431년 에페소에서 열렸으며 성모 마리아를 '신(伸)의 어머니'로 인정하여 마리아에 봉헌하는 예배를 공식화하였음.  
10) 고대 그리스 또는 로마시대의 장방형 평면을 가진 다용도 집회건물로서 후에는 초기 기독교 교회당의 전형이 됨.  
11) 바실리카형 교회건물의 신랑(身廊) 부분  
12) 서양의 전통 교회건축에서 후미의 반원형 돌출공간  
13) 바실리카형 교회건물의 측랑(側廊) 부분  
14) 서양 전통 교회건축의 십자형 평면에서 좌우 돌출부분  
15) A. Bruschi, 1978, *Lineamenti di Storia dell' Architettura*, Carucci Editore Roma, pp. 168~169(도면 발췌, 정리함)

중세 이후 성모마리아 대성당 건물에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4개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 1) 제1단계 (11세기~1549년)

- 에우제니우스3세 교황의 명으로 1145년부터 1153년 사이에 나르텍스(Nartex)<sup>16)</sup>를 철거하고 아트리움(Atrium)을 건축하다.
- 인노켄티우스3세 교황의 명으로 1198년부터 1216년 사이에 현재의 시스티나 소성당 부근에 구유 소성당(Cappella Presepio)을 건축하다.
- 1290년대 초에 니콜라우스4세 교황의 명으로 소성당을 부가함으로써 강단(Tribuna) 부분이 확장되다.
- 1377년에는 그레고리우스9세 교황의 아버지 농으로부터의 귀환을 기념하여 높이 75미터의 로마네스크식 종탑을 건축하다.
- 1500년대 초에는 알렉산드르6세 교황의 명으로 상갈로(Giuliano da Sangallo)가 설계한 네이브 부분의 격자형 목재 천장을 시공하다.
- 1503년부터 1513년 사이에 기존 종탑 상부에 피라미드형의 첨두 부분을 증축하다.

이러한 내용은 도상자료들과의 대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후의 단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련자료가 희박하고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부분을 가설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그림 5〉 15세기 후반의 상황(밝은 부분)<sup>17)</sup>



〈그림 6〉 16세기 중반 성모마리아 대성당의<sup>18)</sup> 개략적인 평면도(밝은 부분)

#### 2) 제2단계 (1550년~1604년)

- 1550년에 체시 소성당(Cappella Cesi)이 성모마리아 대성당의 남서쪽에 건축되며 기존의 주교관과 대성당 본체가 분리되어 통로가 생긴다.
- 1564년에 체시 소성당의 북쪽으로 미켈란

16) 바실리카형 교회건축의 입구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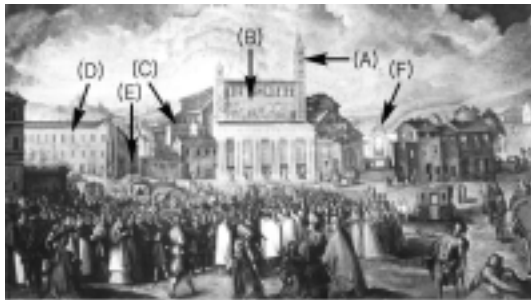
17) 역사화(P. Massaio, 1469년)에서 부분 발췌한 것인데 이 그림에 묘사된 모든 성당들의 건물 매스는 서로 다르게 표현된 반면 종탑은 획일적인 모습인 점을 감안해서 기본적인 건물형태만 참고함.

18) Pianta di Roma(L. Buffalini, 1551년)에서 부분 발췌함.

젤로의 설계에 따라 스포르차 소성당(Cappella Sforza)이 착공되다.

- 1575년에 아트리움에 대한 보수작업과 원기둥들에 대한 확장이 이루어지다.
- 1585년에는 성모마리아 대성당 건물의 북동쪽에, 피우스5세 교황의 시신과 식스투스5세 교황의 사후 시신을 안치할 목적으로 시스티나 소성당(Cappella Sistina)이 건축되다. 또한 대성당 서측의 주교관은 상당부분 철거되다.
- 1587년에 배면부의 광장 쪽으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분묘로부터 높이 14.75미터의 오벨리스크를 이전하여 세우다.

제2단계의 도상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 종탑(첨탑부 완성)/14세기 말(16세기 초반)  
(B) 모자이크 벽면/13세기 말 (C) 체시 소성당/16세기 중반  
(D) 주교관 (E) 골목형성/16세기 중반 (F) 빌라 몬탈토 입구

〈그림 7〉 16세기 후반의 상황(정면부)<sup>1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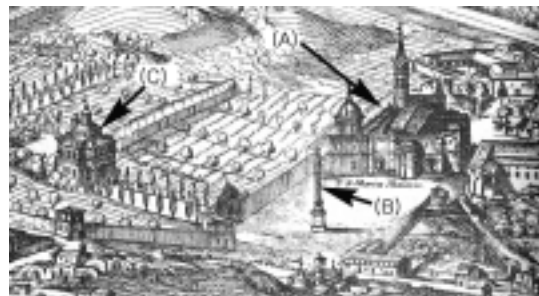
(A) 종탑건축(첨두완성)/14세기말(16세기 초반)  
(B) 체시 소성당 건축/16세기 중반  
(C) 오벨리스크 이전/16세기 말  
(D) 시스티나 소성당 건축/17세기 초반

〈그림 8〉 16세기 후반의 상황(배면부)<sup>20)</sup>



(A) 종탑/14세기 말. (16세기 초 첨탑 완성)  
(B) 체시 소성당 16세기 중반 (C) 오벨리스크 이전/16세기 후반  
(D) 시스티나 소성당/17세기 초반 (E) 스트라다 펠리체/16세기 말  
(F) 비아 메를라냐/16세기 말

〈그림 9〉 16세기 후반의 상황(배면부)<sup>21)</sup>



(A) 성모마리아 대성당 (B) 오벨리스크 (C) 빌라 몬타로

〈그림 10〉 16세기 말의 상황<sup>22)</sup>

19) 바티칸박물관 내 도서관 프레스코화(1589년)

20) 바티칸박물관 내 도서관 프레스코화(158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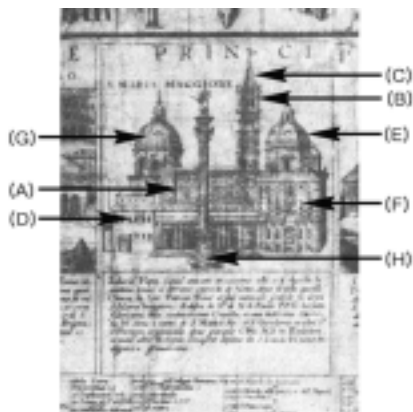
21) 역사화(N. Van Aelst, 1589년)에서 부분 발췌함.

22) 역사화(A. Tempest, 1593년)에서 부분 발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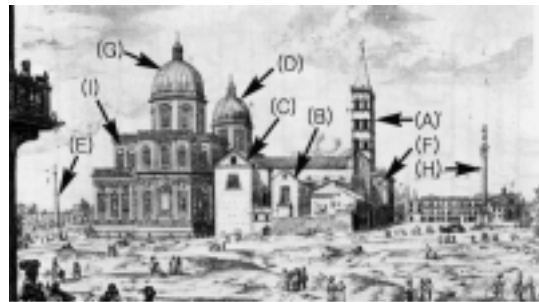
### 3) 제3단계 (1605년~1720년)

- 1605년에는 주교관이 완전 철거되고 그 기능은 대성당 건물 남동측에 새로운 팔라쵸(Palazzo)<sup>23)</sup>를 건축하여 수용하다. 또한 대성당의 북서측 배면부에 연접한 건축부분도 철거하다.
- 1611년에는 파올로5세 교황과 클레멘스8세 교황의 유골을 봉안하기 위해 기존 성구실 철거 후, 대성당의 건물 축을 중심으로 시스틴 소성당에 대칭되는 위치에 파올리나 소성당(Cappella Paolina)을 건축하다.
- 1615년에는 인근의 콘스탄티누스 바실리카에서 높이 14.3미터의 대리석 원기둥을 대성당의 남측으로 이전하여 세우다.
- 1673년에는 클레멘스10세 교황의 명을 받은 라이날디(C. Rainaldi)의 설계에 의해 대성당 배면부의 외관을 변경하다.



(A) 대성당 정면 모자이크 벽체/13세기 말 (B) 종탑건축/14세기 후반  
(C) 첨탑/16세기 초 (D) 체시 소성당/16세기 중반 (E) 시스티나 소성당/16세기 말 (F) 정면부 남동쪽에 팔라쵸 건축/17세기 초  
(G) 파올리나 소성당 건축/17세기 초 (H) 콘스탄티누스 바실리카의 원기둥 이전/17세기 초

〈그림 11〉 17세기 초반의 상황(정면부)<sup>2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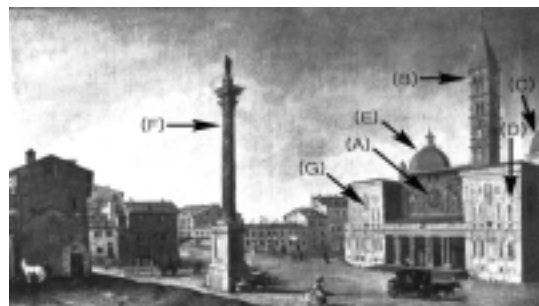


(A) 종탑/14세기 말 (B) 체시 소성당/15세기 중반  
(C) 스포르짜 소성당/16세기 후반 (D) 시스티나 소성당  
(E) 오벨리스크 이전/16세기 말 (F) 부속건물/17세기 초  
(G) 파올리나 소성당/17세기 초 (H) 원기둥 이전/17세기 초  
(I) 후면부 외관 완성/17세기 후반

〈그림 12〉 17세기 후반의 상황(측면부)<sup>25)</sup>

### 4) 제4단계 (1721년~20세기 말)

- 1721년부터 1743년 사이에 대성당의 남동측에 증축한 팔라쵸와 대칭되는 새로운 팔라쵸를 건축하다.
- 1750년 희년(禧年)을 맞아 베네딕투스14세 교황이 대성당의 대대적인 보수작업을 지시하다. 후가(F. Fuga)의 설계로 정면부의 외관을 변경하고 전체 건물 모습은 현재와 같은 상태가 되다.



(A) 정면 모자이크벽체/13세기 말 (B) 종탑/14세기 후반  
(C) 시스티나 소성당/16세기 말 (D) 정면부 정리/17세기초  
(E) 파올리나 소성당/17세기 초 (F) 원기둥 이전/17세기 초  
(G) 정면부 정리/18세기 중반

〈그림 13〉 18세기 초반의 상황(정면부)<sup>2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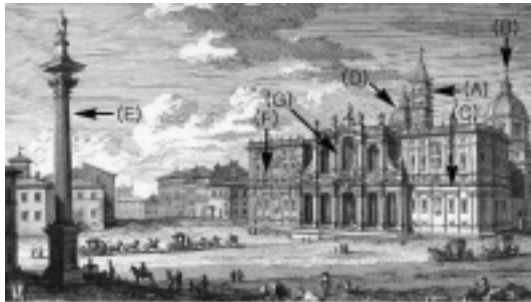
23) 대저택 또는 관저를 의미하는 이탈리아의 전통건축유형

24) 로마지도(M. Greuter, 1618년)에서 발췌한 삽화임.

25) 역사화(L. Cruyl, 1666년)에서 부분 발췌함.

26) 역사화(작가미상, 18세기 중반)에서 부분 발췌함.

18세기 중반 정면부의 외관이 오늘날의 모습으로 정리된 이후, 성모마리아 대성당의 건물 매스와 내부의 공간체계는 특별한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는 대성당 건물이 수세기를 거치며 전체적으로 안정된 외관과 공간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예배 프로그램에 의한 새로운 공간적 요구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 종탑/14세기 후반 (B) 시스티나 소성당/16세기 말  
(C) 부속건물 증축/17세기 초 (D) 파올리나 소성당/17세기 초  
(E) 원기둥 이전/17세기 초 (F) 부속건물 증축/18세기 중반  
(G) 정면부 외관 완성/18세기 중반

〈그림 14〉 18세기 중반의 상황(정면부)<sup>2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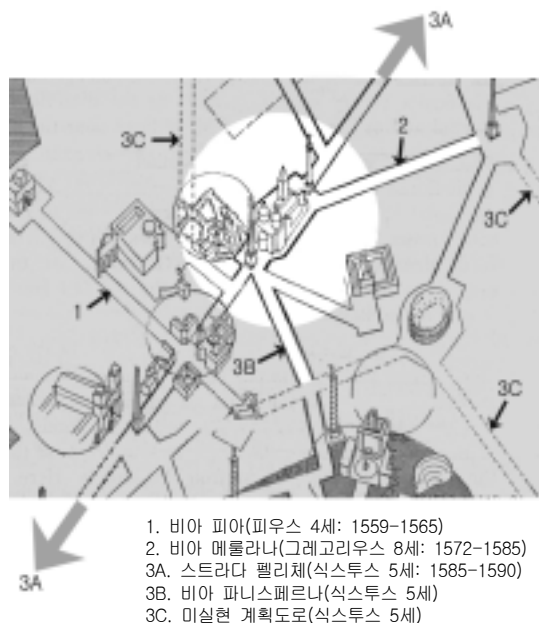
(상) 1768년 판화(G.B. Piranesi) (하) 21세기 초반 사진

〈그림 15〉 대성당 내부의 공간체계

### 3. 대성당 주변 도시맥락의 변천과정

#### 1) 15세기~17세기 중반

로마의 르네상스가 극성기를 맞은 15세기 중반부터 바로크시대인 17세기 초반까지 로마에서 이루어진 도로체계의 중요한 변화는 건축사가(建築史家) 기디온이 그의 저서에서 도식으로 정리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몇 가지 사항<sup>28)</sup>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유효하다.



1. 비아 피아(피우스 4세: 1559-1565)  
2. 비아 메롤라나(그레고리우스 8세: 1572-1585)  
3A. 스트라다 펠리체(식스투스 5세: 1585-1590)  
3B. 비아 파니스페르나(식스투스 5세)  
3C. 미실현 계획도로(식스투스 5세)

〈그림 16〉 16세기 대성당 주변의 도로체계<sup>2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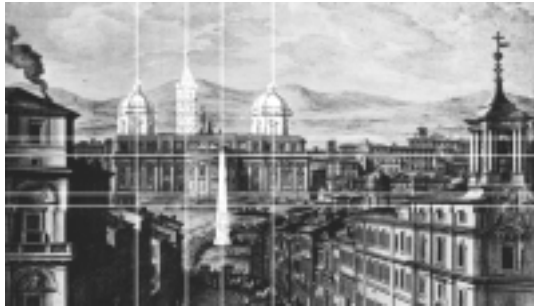
고대 로마시대 아우구스투스 황묘 근처에 설치한 오벨리스크를 16세기 말에 스트라다 펠리체의 도로 축 상으로 옮긴 것은 중요한 점을 시사하는데 즉, 훗날 라이날디가 설계한 대

27) 역사화(G. B. Piranesi, 1748년)에서 부분 발췌함.

28) 예를 들어 비아 파니스페르나 도로의 축이 오벨리스크에 수렴하도록 묘사된 점과 파울로 5세 교황 재임 중에 조성된 비아 파올리나 도로가 누락된 점 등이 오류임.

29) S. Giedion, op., cit., p. 79에서 발췌 후 작업함.

성당 배면부 외관과 시각적 조화를 이루게 되는 오벨리스크를 매개로 도시스케일과 건축스케일의 제반 요소들이 시지각적으로 통합되는 체계를 만든 것이다.



〈그림 17〉 대성당과 광장의 수직 조형요소<sup>30)</sup>

이는 17세기 초에 콘스탄티누스 바실리카의 원주를 옮겨와 대성당의 정면 광장에 세우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 기념원주는 정확하게 대성당 건물의 중심 축 선상에 위치하면서 식스투스5세 교황의 로마개조사업의 중추가 되는 스트라다 펠리체와는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성당 건물을 사이에 두고 배면광장의 오벨리스크와 대위법적으로 소통하는 조형요소의 의미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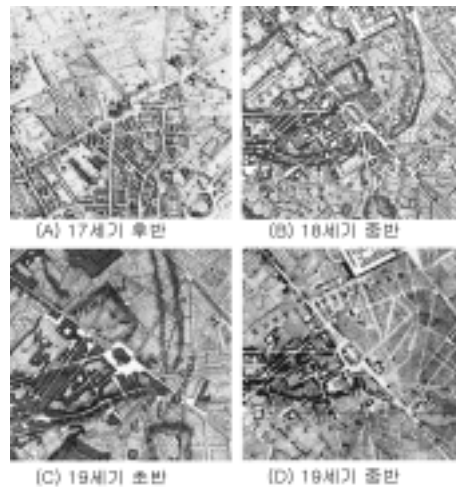
성모마리아 대성당 주변의 도로들 중에서 특히 비아 메룰라나(Via Merulana)와 비아 파니스페르나(Via Panisperna) 도로는 시스티나 소성당의 쿠폴라(Cupola)<sup>31)</sup>에 도로 축을 수렴시키는 수법으로 건축요소와 도로의 대응과 소통을 강화하였으며 연이어, 비아 파올리나(Via Paolina) 도로의 축을 파올리나 소성당의

쿠폴라로 향하게 설정한 것도 같은 원리이다.

## 2) 17세기 중반~19세기 후반

17세기 이후 인쇄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로마의 지형과 고적, 명소 등을 묘사하는 지도제작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보임에 따라 이 시기 로마의 도시변천을 기록하는 도면 또는 도상자료들은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물론 도시공간의 변천상황과 역사화 또는 지도들의 간행시점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자료들을 비교, 대조하는 방식으로 해당기간의 도시맥락 변천을 파악할 수 있다.



(A) 1678년 G. B. Falda의 로마지도에서 발췌  
(B) 1748년 G. B. Nolli의 로마지도에서 발췌  
(C) 1800년 A. Uggeri의 로마지도에서 발췌  
(D) 1824년 P. Ruga의 로마지도에서 발췌

〈그림 18〉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상황

17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는 성모마리아 대성당 주변의 도시맥락에 큰 변화가 보

30) 역사화(G. Vasi, 1771년)에서 부분 발췌 후 작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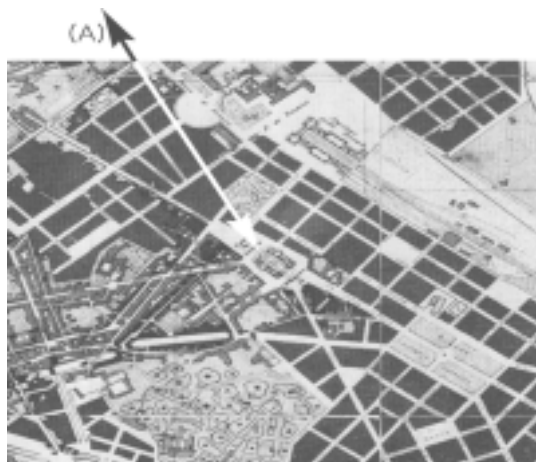
31) 서양 교회건축의 반구형 지붕

이지 않으며 공지(空地)나 기존건물에 대한 신축 또는 증축으로 건축 밀도의 점진적인 증가가 이루어지고 필지구획이 세분되는 정도를 알 수 있다(〈그림 18〉).

특히 식스투스5세 교황의 사저(私邸)였던 빌라 몬탈토의 정원 및 경작지는 19세기 중반까지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데 이는 바로크 이후 로마의 도시경제 활동이 계속적으로 침체되었기 때문에 스트라다 펠리체와 직접 면하는 지역에서조차 상당한 면적의 공지(空地)가 나대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 3) 19세기 말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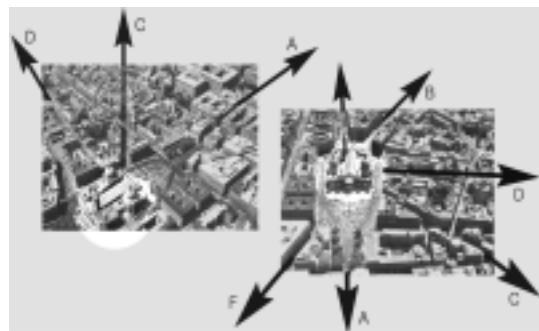
교황령이었던 로마는 1870년에 통일이탈리아 왕국의 수도로 공식 선포되고 새로운 도시 계획이 입안되는데 성모마리아 대성당 주변의 공터에 대한 필지구획과 도로망 건설은 상당부분이 이 시기에 결정된다.



〈그림 19〉 19세기 말 비아 토리노(A) 개통<sup>32)</sup>

이는 1873년의 도시계획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성모마리아 대성당의 파올리나 소성당 쿠플라를 수렴점으로 하여 북서쪽으로 가로지르는 새로운 도로 비아 토리노 (Via Torino)가 신설된다.

비아 토리노는, 16세기 말과 17세기 초에 비아 메룰라나, 비아 파니스페르나, 비아 파올리나 도로들의 방향이 대성당 쿠플라에 수렴하는 시선 축으로 연결된 것과 같은 방식에 의해, 도로의 축이 설정되었고 이는 바로크적인 도시계획기법이 근/현대도시에 적용된 사례로 볼 수 있다.



- A. 스트라다 펠리체(16세기 말)
- B. 비아 메룰라나 도로(16세기 말)
- C. 비아 파니스페르나 도로(16세기 말)
- D. 비아 파올리나 도로(17세기 초)
- F. 비아 토리노 도로(19세기 말)

〈그림 20〉 대성당 주변 방사형 직선도로체계

20세기 이후의 도시맥락 변화는 주로 항공 사진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성모마리아 대성당 건물과 주변 맥락의 관계에서 오는 상황변화보다는 로마 종착역의 건설을 포함한 새로운 개발정책 및 도심부 고밀화에 의한 변화가 주로 이루어진다.

32) 로마 도시계획도(1873년)에서 부분 발췌 후 작업함.

또한 다른 근/현대도시의 경우와 같이, 자동차 교통 시대가 열리면서 기존 도로들의 폭이 확장되고 성모마리아 대성당 주변의 직선도로들은 교통량의 처리능력에서 뿐만 아니라 시지각적 또는 도시조형적 측면에서도 그 존재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강조되었다.

#### 4. 대성당 건물과 주변부 도시맥락의 상호 대응적 변천과정

성모마리아 대성당 건물은 주변 도시맥락과의 대응관계를 유지하며 변천해 왔는데 주변 골목길들에서 대성당의 쿠플라를 시각적으로 인지하게 하는 원칙은 식스투스5세 교황이 처음 적용한 이후 근 3세기가 지난 19세기 말의 도시계획에도 반영되었다(<그림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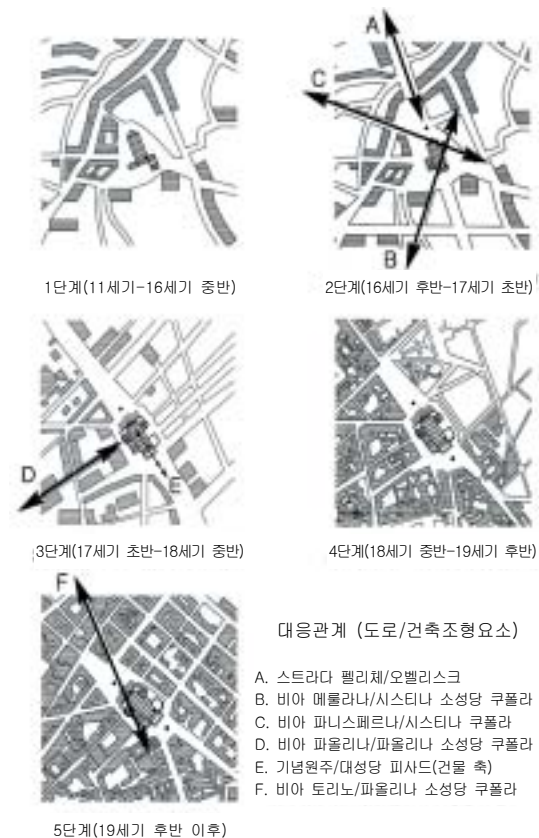
16세기 말 스트라다 펠리체의 개통은 대성당 주변부의 도시맥락 형성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고 이에 부수하는 좀더 작은 스케일의 적응과정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대성당 건물과 주변 골목길의 소통관계를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개의 쿠플라를 주변 4개 도로 축의 수렴점으로 하는 도로체계가 설정되었는데 16세기 말의 비아 메를라나 도로와 비아 파니스페르나 도로, 17세기 초의 비아 파울리나 도로, 19세기 말의 비아 토리노 도로 등의 개통이 그러한 변화과정의 결과이다(<그림 22>).

#### 5. 소결

전술한 바와 같이, 성모마리아 대성당 건물

과 주변 도시맥락의 대응관계는 주로 직선도로와 건축조형요소의 시지각적 통합작용을 통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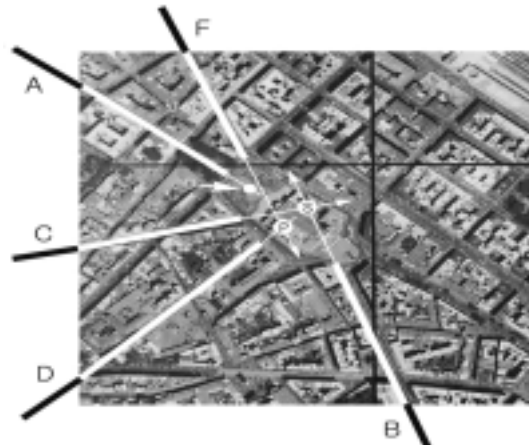


<그림 21> 도로와 건축조형요소의 대응적 변화

스트라다 펠리체와 오벨리스크의 조합으로 상징되어온 식스투스5세 교황의 도시공간 구성 방식이 상위개념의 의도라고 한다면 주요 건축물과 주변 골목길들의 대응을 유도하는 것은 그보다 위계가 낮은 계획의도라 할 수 있다.

또한 스트라다 펠리체와 오벨리스크의 대응이 도시스케일에서의 설계수법이라고 한다면 성모마리아 대성당의 크지 않은 쿠플라들과 주변 골목길들의 대응은 건축스케일에서의 설

계수법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주변 골목길에서 쿠폴라를 인지하는 보행자들은 대성당 건물의 건축상세를 구체적으로 느끼며 건축물의 존재를 실감하기 때문이다.



A. 스트라다 펠리체(16세기 말) B. 비아 메올라나 도로(16세기 말)  
C. 비아 파니스페르나 도로(16세기 말) D. 비아 파올리나 도로(17세기 초)  
F. 비아 토리노 도로(19세기 말) O. 오벨리스크 이전(16세기 말)  
S. 시스티나 소성당(16세기 말) P. 파올리나 소성당(17세기 초)

〈그림 22〉 대성당 주변부의 시지각 체계<sup>33)</sup>



〈그림 23〉 쿠폴라와 주변 도로에서의 시선 축

식스투스5세 교황의 로마 도시개조사업은 단

순히 도시의 물리적 공간구조를 변경하는 도시 스케일의 프로젝트라는 의미를 넘어서, 사업의 근간인 스트라다 펠리체의 생성에 부수하는, 인근의 도시맥락과 주요 건축물간의 상호 소통 및 적응을 유도하는 역사적인 사례이다.

성모마리아 대성당은 식스투스5세 교황이 로마 개조사업을 구상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중요한 도시조형요소로 설정되었는데, 대성당 건물과 도시맥락에 대한 건축적 조율을 통해 당시 교황의 수구적 입장을 강화하는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도시 전체의 면모를 일신하려는 복합적인 의도가 사업구상에 전제되었다.

구체적인 설계수법으로는 바로크시대 도시 계획에 주로 적용된 시선 축의 설정이며, 이에 따라 성모마리아 대성당 부근의 도로체계와 건축물의 조형요소들이 긴밀한 인과관계 속에서 안정되고 조화로운 도시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었다.

성모마리아 대성당 건물의 변천과정과 식스투스5세 교황의 도시개조사업에 의한 주변 맥락의 변화를 분석하고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성모마리아 대성당의 규모 확장은 건물 기능상의 요구 외에도 주변 도시맥락과의 소통이라는 상징적이고 조형적인 의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 2) 시스티나 소성당과 파올리나 소성당의 지붕인 두개의 쿠폴라는 신성(神性)의 표상이라는 건축조형적 의미를 가지는

33) 1990년 제작된 항공사진에서 부분 발췌 후 작업함.

동시에 각각 주변의 도로 축으로부터 지  
표점을 형성하는 시지각적 역할도 한다.

- 3) 성모마리아 대성당 배면광장의 오벨리스크는 스트라다 펠리체의 도로 축에 위치함으로써 대성당의 도시 내 위치를 강조한다. 한편 라이날디에 의해 설계된 배면부 외관은 기존 오벨리스크와의 시각적 조화를 통해 도로(스트라다 펠리체)와 건축물(대성당)의 융합을 모색하고 있다.
- 4) 성모마리아 대성당 전면광장의 기념원주는 대성당 건물 축에 위치함으로써 내부 공간으로 상징되는 건축적 메시지를 광장까지 확장시키는 작용을 하면서 배면광장의 오벨리스크에 대한 대조를 통해 도시스케일에서의 조형적 안정을 꾀하고 있다.
- 5) 19세기 말의 도시계획을 통해 개통된 비아 토리노는, 16세기 말과 17세기 초에 적용된 방식에 따라, 도로의 축이 쿠폴라 방향을 향하도록 설정되었으며 이는 대성당 건물에 대한 시각적 인지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 IV. 맺는말

로마에 소재한 성모마리아 대성당의 변천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역사도시 내의 주요 건축물이 주변 도시맥락과 소통하고 대응하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모든 도시와 건축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지니기 때문에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일반화하여 모든 경우에 유효한 이론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다음과 같

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 1) 도시 내의 모든 건축물들은 주변 맥락의 변화에 어떤 방식으로든 반응하면서 존재한다. 건축물과 도시맥락 사이의 상호작용은 도시차원에서 발생한 변화에 건축물의 형태나 기능이 순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양방향 소통을 통해 상호 조율된다.
- 2) 어느 지역의 장소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건축물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주변 도시맥락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이러한 상호 소통의 결과는 새로운 건축적 또는 도시적 변화를 유도하는 물리적인 변수로 작용한다.
- 3) 도시스케일의 사업이 시행될 때는 위계에 따른 각 차원의 개입이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식스토스5세 교황이 로마 도시개조사업을 추진할 때 스트라다 펠리체와 오벨리스크를 조합하여 직선도로와 조형물을 시지각적으로 통합한 것이 거시적인 방향설정이라고 한다면, 좀더 미시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 대성당 건물의 쿠폴라와 주변 골목길들이 대응하게 하는 후속 조치가 그러한 예이다.
- 4) 역사도시 내에서 도시맥락과 건축요소의 대응방식에 관한 구체적이고 뚜렷한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이 원칙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도시형태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16세기 말과 17세기 초, 성모마리아 대성당과 직접 면하는 3개의 골목길에 적용된 시선 축에 의한 시지각적

통합 원칙이 19세기 말, 비아 토리노 도로의 개통에 동일하게 적용된 것이 그러한 예이다.

- 5) 장소성이 강한 특정지역의 도시공간구조를 다룰 때는 그 지역에 이미 적용된 공간 구성방식을 존중함으로써 기존 도시 맥락과의 괴리(乖離)를 피하는 한편 조화로운 도시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다.

#### 참고문헌

Aragozzini, L., 1992, *Le Pianta di Roma*, Regione Lazio.  
 Bacon, E. N., 1992, *Design of Cities*, Thames and Hudson.  
 Benevolo, L., 1992, *Roma dal 1870 al 1990*, Laterza.  
 Bruschi, A., 1978, *Lineamenti di Storia dell' Architettura*, Carucci Editore.  
 Cavazzi, L., 1992, *Piranesi e la Veduta del Settecento a Roma*, Regione Lazio.

Giedion, S., 1967, *Space Time and Architecture*, 5th Edition.  
 Insolera, I., 1988, *Roma*, Laterza.  
 Lazio, Regione., 1993, *Roma di Sisto Quinto*, Edizioni De Luca.  
 Morris, A. E. J., 1979, *History of Urban Form*, Halsted Press Book.  
 Patetta, L., 1991, *Storia dell'Architettura*, Etaslibri.  
 Salvadori, R., 1988, *101 Architetture da vedere a Roma*, Canal Libri.  
 Sanfilippo, M., 1993, *Le Tre Citta' di Roma*, Laterza.  
 Zevi, B., 1979, *Cronache di Architettura*, Laterza.  
<http://www.arcobaleno.net/costume/smariamaggiore.htm>.  
[http://www.donboscobasilica.pcn.net/Giubileo/SMaria\\_Maggiore.htm](http://www.donboscobasilica.pcn.net/Giubileo/SMaria_Maggiore.htm).  
<http://www.gasparrisoft.com/giubileo/htm>.  
<http://www.romasegreta.it/monti/corpo17.htm>.

원 고 접 수 일 : 2004년 2월 27일  
 최종원고채택일 : 2004년 3월 20일